

양치기가 찾아낸 행복이라는 보물



변용란 | 번역가

개인적으로 양치기라는 낱말과 함께 순간적으로 연상되는 것은 알폰스 도데의 《별》이다. 은둔에 가까운 단순한 풍경 속에서 늘 가까이하는 친구라고는 하늘의 별과 지상의 양떼밖엔 없는 이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정을 누구보다 그리워하고 또 감사하며 보듬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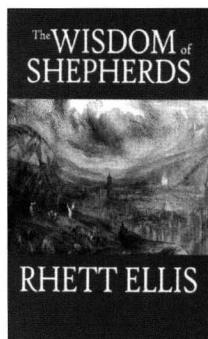
도데의 《별》에서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향한 고결한 사랑을, 잠든 그녀에게 그저 어깨를 내어주는 것으로 순박하게 표현했던 스무 살 양치기 청년이 기어코 끓어오르는 열정을 아가씨에게 고백했다면? 그래서 거절당한 사랑의 상처를 전쟁터에 나가 용감한 전사의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려 했다면? 스스로 빛나는 공을 세웠다 여기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사랑하는 아가씨도, 홀어머니도, 정신적 버팀목이던 신부님도 사라지고 아무도 없다면? 물론 이 모든 가정은 이 작품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양치기가 주인공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에 불과하지만, 이 책에 나오는 희끗한 머리와 수염을 덩수룩하게 기른 양치기 노인 칼립은 어쩐지 도데의 양치기 청년이 5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의 모습처럼 여겨진다.

칼립은 양떼와 함께 바깥 잠을 자며 초라한 음식을 즐기는 생활을 반세기 동안 이어온 전형적인 양치기다. 그가 하나하나 정겨운 이름을 붙여준 양떼는 그의 걱정과 기쁨과 슬픔을 묵묵히 공유하는 친구이고, 숲의 나무와 하늘의 별 또한 양치기 노인의 소중한 인생 동반자다. 양치기들 가운데 나이도 제일 많고 지혜로워 존경을 받지만, 칼립은 젊은 시절 가슴 아픈 사랑의 상처로 인해 무모하리만치 만용을 부렸던 전사로서의 과거를 깊이 묻어두고 여전히 악몽에 시달린다. 이제 그는 잘 알고 있다. 세속의 편안함과 눈앞의 이익보다는 자유로운 떠돌이 생활의 소박한 미덕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연과 교감하는 양치기의 삶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길임.

혹독한 겨울이 되면 버려진 숲속 오두막에서 한기를 피하던 칼립의 '크리스마스 오두막'에 홀연히 나타난 수잔과 클라라 모녀. 오두막 굴뚝 아래엔 청년

칼립의 불행한 과거를 상징하는 물건이 파묻혀 있기에, 그는 낯선 이들의 출현이 더욱더 막막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킨 고아 출신 수잔의 감추어진 아픔을 알게 된 칼립은 지혜롭게 그녀의 인생에 개입한다. 딸 같고 손녀 같은 수잔과 클라라 모녀의 행복을 되찾아 주기 위해 50년 만에 처음으로 바닷가 작은 마을인 고향을 떠나 번잡하고 타락한 항구도시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일흔 살 노인에게겐 커다란 모험이자 새삼스런 깨달음의 기회였던 여행에서 돌아온 칼립은 드디어 자신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 수잔 모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선사한다.

정확한 시대적, 공간적 배경도 짐작할 수 없는 이 우화 소설엔 늑대떼의 습격과 보물을 노리는 해적, 숨겨진 왕관의 보석 등 흥미로운 소재와 신과 인간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이 전래동화처럼 쉽고 정감 있는 문체로 버무려져 있다. 청소부와 조립공, 세일즈맨, 기자, 대학 강사, 목사라는 다양한 직업을 거친 독특한 경력의 저자가 전하는 '신과 인간과 정의에 관한 사랑과 지혜'의 메시지는 늙고 외로운 양치기가 양떼에게 나직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그렇게 소박하고 은은하다. **한글**



제목 양치기의 지혜 The Wisdom of Shepherds
 저자 레트 엘리스 Rhett Ellis
 출판사 Sparkling Bay Books

우리는 모두모두 친구야



김지효 | 번역가

어머니들은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아기에겐 넓고 환한 세상을 보여 주려고 바깥 날씨에 신경을 쓴다. 그러다가 드디어 햇빛 좋은 날, 밖으로 데리고 나가 고만고만한 아기를 만나게 되면 '친구도 나왔네!' 하며 반색한다. 아기들은 양증맞은 손을 서투르게 뻗으며 상대방에 대한 탐색전을 벌이기도 한다. 한 쪽에서 울음을 터뜨리더라도 하면 어머니 입에서 으레 나오는 말, '친구끼리 사이 좋게 놀아야지' 물론 이 '친구'는 피차 오늘이 초면이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들의 습관적인 교육관에 따라 '친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아기 때는 단순했던 친구관계도 조금 더 자란 유아기에 접어들면 더는 단순함을 유지할 수 없다. 유아교육기관에라도 들어가 보라. 그 또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재미난 일, 속상한 일이 다 일어난다. 아이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것도 아마 이때부터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듯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란 대관절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을 명쾌히 제시하는 이 책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그림책이다. 하지만 그림책 하면 얼른 떠오르는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 아기자기하고 고운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집밖에 나가면 금방 마주치게 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세계가 지극히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강렬하다.

책의 내용은 크게, '친구란 ○○이다'를 시작으로, '친구라면 ○○하자', '혼자서는 ○○할 수 없어도 친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럴 때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 '다툼', '서로 달라도 친구는 친구', '만난 적이 없어도'로 나뉘어져있고, 여기에 고작 한 줄, 많아야 두 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 소박하고 따뜻한 그림 속에 녹아 있다. 특히 마지막 몇 쪽의 '만난 적이 없어도'는 어른들도 꼭 보았으면 싶다. 바로 앞장에까지 있었던 소박함, 따뜻함을 전해 주던 그림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불우한 환경 속의 다른 나라 아이들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쉽사리 책장을 덮을 수 없게 만든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와 풍요한 생활 속의 아이 사진은 그만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몇 자 안 되는 글조차 필요 없을 정도다.

친구끼리 그냥 사이 좋게 지내자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역설한 덕에, 읽기 시작할 때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친구론 정도로 알다가, 다 읽고 나면 글로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을까 싶다. 그런 면에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뿐 아니라 그 이상의 연령층까지도 충분히 독자가 될 수 있다.

그림책에 고달프고 빈곤한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런데 따뜻한 그림과 모질고 박정한 현실 세계가 동시에 교차되어 있는 것을 보니 신선하다는 느낌과 더불어 이런 표현 기법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진부한 이 머리를 쿵쿵 치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친구가 뭘까,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뭘까에 대해 어른과 아이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친구 사귀기에 대해 어른이 나서서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읽어주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다. 참! 친구를 주제로 하는 토론 수업, 어디 없을까. 이 책을 교재로 꼭 한번 활용해 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김지효**



제목 《친구》
저자 다나가와 순타로
출판사 다마가와대학출판부

유목민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조정훈 | 번역가

지난 20세기는 아만의 시대였다. 적어도 인류가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진화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랬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민족, 국가분쟁, 계급과 이념의 충돌, 그에 따른 대량학살이 지난 100년을 지배했다. 우리는 21세기 새천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지구상에 집단적 피를 부르는 전쟁은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종소리의 여운이 귀에서 사라지기도 전 세계는 다시 테러와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화를 계속할 것인가 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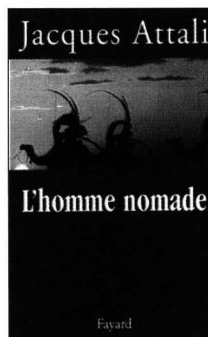
프랑스의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가 제시한 '노마드(유목민)'라는 개념은 수백만 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21세기의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그가 1998년 펴낸 《유목민 *l'homme nomade*》은 자신이 창안한 '노마디즘'의 철학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책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지난 5백만 년 동안 유목민으로 지구를 떠돌며 살아 왔다. 인간들이 농토를 일구고 한 곳에 정착해 산 것은 고작 최근의 7천 년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7천 년의 짧은 정착 역사는 인간의 유목민으로서의 본능과 속성을 철저히 감추어 버렸다. 불, 언어, 종교, 승마, 농경, 목축, 야금술, 항해, 바퀴, 민주주의, 시장, 음악, 예술 등 지금까지 인간문명의 핵심을 이루었던 발명품들이 모두 유목생활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유목민은 지금까지 말과 총칼을 앞세우고 쳐들어와 문명세계를 약탈하는 '야만인'들로 묘사되어 왔다. 중국과 이집트, 로마, 유럽 등 문명제국에 발명과 창조의 소스를 전해준 것은 떠돌이 유목민들이었다. 제국이 이방인 유목민과 방랑자들을 배척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그들은 하나같이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

유목민 1세대는 정착민(*l'homme sedentaire*)의 시대와 함께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 '세계화(globalisation)' 물결 아래 새로운 유목민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양과 낙타를 이끌고 초원을 떠도는 유목민은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동기술(사이버 이동기술을 포함한)을 가지고 세계를 유랑하는, 전혀

새로운 '시간개념'으로 무장한 디지털 유목민들이다. 이제 정착민들의 속성인 직업, 주거, 가정 등에 대한 의식과 형태는 완전히 변화할 것이고 자본주의적 생산과 거래 방식 또한 변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마지막 정착민을 주도한 '아메리카 제국'의 시대 또한 막을 내릴 것이라 게 아탈리의 주장이다.

언뜻 사이버 공상과학소설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를 보면 그리 먼 미래의 일만도 아니다. 첨단 디지털 장비가 시간과 공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 같은 직장 지역, 업종에 매달리지 않고 직업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는 '잡 노마드'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국적과 집, 거주지, 주소의 개념은 점점 희미해지고, 가족들을 거느린 채 세계의 이곳저곳을 떠도는 국제적 유목민 집단 또한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에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낸 자크 아탈리는 '미테랑의 노트북 컴퓨터'라고도 불린, 프랑스 최고의 정책 브레인이었다. 그의 새로운 역사의 해석,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과연 21세기의 새 길을 찾아 나선 인류에게 희망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번 지켜볼 일이다. *******



제목 《유목민》 *L'homme nomade*
저자 자크 아탈리 Jacques Attali
출판사 Fayard



홍재웅 | 한국외대 외국문화연구소 연구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역사란 '이미 일어났던 것을 다루는 것' 인데 반하여 문학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그리는 것' 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하여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형상화된다면 이 또한 문학이다. 이미 인증된 역사적 자료로부터 작가가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창작' 함으로써 만들어낸 문학의 형태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과거의 기록과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조화로운 결합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역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중 유일하게 국내에 알려진 작품이다. 12세기 덴마크 역사를 소재로 하여 쓰인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음모와 모순성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순결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쳐 무너져가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널리 공연되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페르 울름 엔퀴스트의 <크리스티안 7세와 그의 주치의>는 <햄릿>처럼 덴마크 역사를 소재로 하여 쓰인 소설이다.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보여주는 문체와 성격 창조의 상상력을 통하여 인간의 근원적 양상을 탐구하고 있다. <햄릿>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처럼 덴마크 역사를 소재로 한 이 작품 또한 인간의 높고 깊은 의식에 충격을 주고, 사상적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1766년 열일곱 살에 덴마크 왕위에 오른 크리스티안 7세는 햄릿처럼 감수성이 예민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받은 혹독한 교육으로 정신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정신분열증을 앓아야 했다. 18살이 되던 해 15살의 영국 공주 캐롤린 마틸다와 정약결혼을 올렸지만 병을 앓고 있던 크리스티안 7세는 순조로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새로이 임명된 주치의로 스트루엔세이라는 독일인이 있었다. 그는 크리스티안 7세의 신임을 얻어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왕비 마틸다와 애정관계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스트루엔세와 마틸다 왕비는 크리스

티안 7세의 이복동생과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4년 만에 제거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를 토대로 한 <크리스티안 7세와 그의 주치의>는 한 시대에 종속되어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그 시대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절대군주 크리스티안 7세의 모습은 가면으로 위장되어 있고, 왕의 권력을 대행하며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주치의는 루소와 볼테르의 계몽주의 철학을 펴고 있지만 역시 한낱 주치의일 뿐이다. 즉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왕이었어도 힘과 부를 통하여 왕권을 미화했던 것처럼 현재의 정치가들도 자신들의 치부를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다.

'영국의 장미' 라고 칭송받던 마틸다 공주는 어린 소녀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며 깨달음을 얻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데, 여성의 모습은 왕비나 일반여성이나 결국 사회에 의해서 쉽게 희생되고 늘 약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작가 특유의 문체로 소화해 내고 있다. 또한 덴마크 역사의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4년의 과정에서 세 명의 주요인물이 가지는 삼각관계를 통하여 현재 정치가들의 모습을 꼬집으며 이제까지 가려져 왔던 역사를 새롭고 흥미롭게 조명하고 있다. **◆**



제목 크리스티안 7세와 그의 주치의 Livakarens besök
저자 페르 울름 엔퀴스트
출판사 Norstedts 1999